

업계소식

다향오리



2019 DLG 국제 식품 품평회'서 13개 제품 수상 쾌거



다향오리는 독일농업협회에서 주최하는 ‘2019 DLG(Deutsche Landwirtschafts Gesellschaft) 국제 식품 품평회’에 자사 제품 13종을 출품해 금상 8개, 은상 5개를 수상했다. DLG 국제 식품 품평회는 100년 전통의 국제적 품질평가기관인 독일농업협회(DLG)에서 매년 주최하는 세계 최대 식품 품질 경연대회다.

올해 대회는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센터가 유치에 성공해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됐다. 이번 품평회에는 국내 유수의 15개 육가공업체에서 160개 육가공품을 출품했다. 다향오리는 통살 훈제오리 바베큐, 오리 스테이크, 열탄불고기 등 8개 제품이 금상을, 다향 밥엔덕 슬라이스햄, 다향 훈제오리, 오리비엔나 등 5개 제품이 은상을 수상하며 총 13개 품목이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특히 ‘통살 훈제오리 바베큐’는 100% 국내산 오리를 참나무 훈연을 통해 기름기는 빼고 담백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으로 에어프라이어에 최적화된 재료와 조리법을 적용해 가장 사랑받는 메뉴이기도 하다. 또한, 달콤한 불고기 소스에 숯불 향의 깊은 불맛이 더해진 ‘열탄불고기’는 남녀노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가정 간편식 제품이다.

다향오리 관계자는 “세계적인 국제 식품 품평회에서 당사 제품이 수상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고품질의 간편식 제품을 계속해서 선보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주)백광소재

⋮

가축질병 방역 및 소독용 생석회 공급중

⋮



▲방역및소독효과

• 구제역 • 돼지콜레라 • 아프리카돼지열병 • 조류인플루엔자

1980년 설립하여, 1991년 기업을 공개한 주식회사 백광소재는 국내 최대의 부존자원인 석회석을 가공하여 생석회, 소석회, 수산화칼슘, 경질탄산칼슘 등 각종 고품위 석회 제품을 전문 생산하는 국내 최고의 기술을 선도하고 최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석회업계의 대표 중견기업이다.

충청북도 단양에 위치한 영천광산과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화암광산에서는 채광기술의 현대화, 기계화를 실현하였으며 연간 140만 톤의 석회석 정광을 채광 공급하고 있다.

또한 단양의 백광광산, 방림광산 및 예미 삼육광산등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인 연간 75만 톤 규모의 생석회 생산 능력을 보유한 단양1,2공장에서는 베켄바하로, A.L.C.로, 회전로, 입식로, 개량형 토중로 등 다양한 소성로를 보유하고 제강용, 화학용, 농업용 등 다양한 석회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각종 생석회 제품 이외 특수용도에 적합하고 사용 편리성이 추가된 분생석회, 과립생석회, 소석회, 비산방지소석회, 유기질석회비료, 농약등을 공급하고 있고, 에너지 저감효과를 위한 유연탄 및 페트로코크스 가공 사업을 새로이 시작 하였다.

문의 : 043-421-2222

홈페이지 : swgrp.co.kr